

원주~새말, 영월~방림 국도 올 착공

국토교통부 도내 국도 17개 구간 확장·신설 추진

도내 고속도로 3개 구간 공사에 2,200억원 투입

동서고속도로(동홍천~양양) 등 도내 고속도로 3개 구간과 원주~새말 등 국도 17개 구간의 확장, 신설 사업이 추진된다. 국토교통부는 5일 전국의 고속도로 및 국도의 확장, 신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책정된 도로 예산의 절반 이상을 투입키로 하면서 도내 구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국토부는 올해 88고속도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해 개통하는 등 전국에서 고

속도로 21개, 국도 222개의 확장·신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우선 도내 고속도로의 경우 동서고속도로(동홍천~양양)에 올해 1,416억 원이 반영된다. 또 동해고속도로(동해~삼척)는 377억 원, 주문진~속초 고속도로는 40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.

국도 구간은 원주~새말 구간과 영월~방림3 국도는 각각 5억 4,000만원, 5억원이 투입돼 올해 착공된다. 이어 평창~정

선1 국도건설(23억원), 태백-도계 지역4차 건설(286억원), 평창-정선2 지역4차 건설(39억원), 철원서면우회 지역5차 건설(159억원) 등은 올해 안에 준공기로 했다.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도로 보상비 등 1조7,000억 원을 지원해 서울~문산은 착공, 수원~광명·광주~원주는 2016년 개통한다.

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안전을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. 사고 잦은 곳 개선, 낙석·산사태 위험구간 정비, 포트홀(도로에 움푹 팬 곳) 예방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후 교량 정비(12개), 교량 내진 보강(12개), 터널 방재시설 보강(125개) 등 교량·터널 보수사업과 안전점검을 추진한다. 국토부 관계자는 “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로예산 9조945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57%인 5조2,000억원을 집행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서울=홍현표기자